

늦여름에 만난 두번의 캘린더 전시회

남서울대학 · 월간 아뜨리에 주최 홍일문화인쇄 후원



여름 끝물에 찾아온 늦더위와 함께 캘린더를 소재로 한 뜻깊은 전시회가 남서울대학교 시각정보 디자인학과와 월간 아뜨리에 주최로 열렸다. 홍일문화인쇄사(대표 이연지) 후원으로 열린 두 번의 전시회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전시품목이 예술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캘린더 소재였다는 점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먼저 전시회를 개최한 곳은 남서울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학생들로 8월22일부터 28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미술관에서 '한국의 美 - 캘린더 50選'을 열었다.

올해로 6회 째를 맞이하는 남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캘린더 전시회는 선병일 교수의 지도아래 진행되는 '그래픽디자인' 과목의 최종 결과물로, 올해는 4학년 학생 중 98명이 참석해 총 48점의 작품을 내놓았다.

5회 전시회까지는 특별한 주제가 없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춰서 전시회가 진행되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특별히 '한국의 미' 라는 주제가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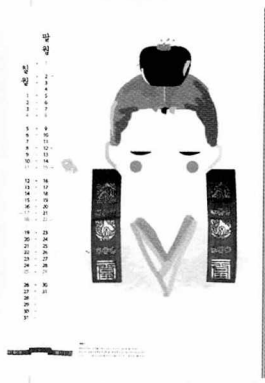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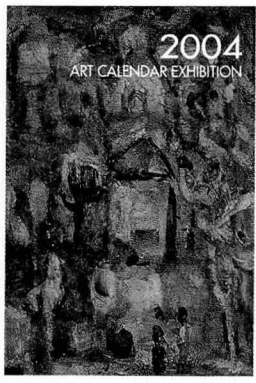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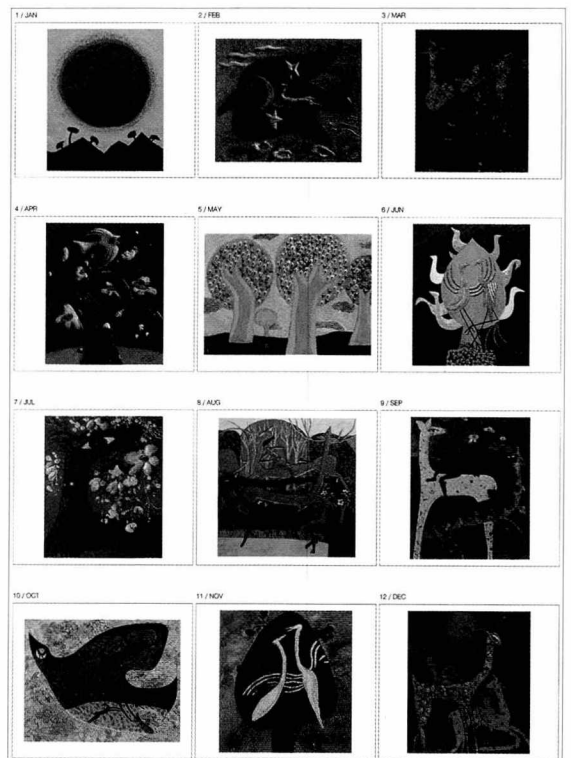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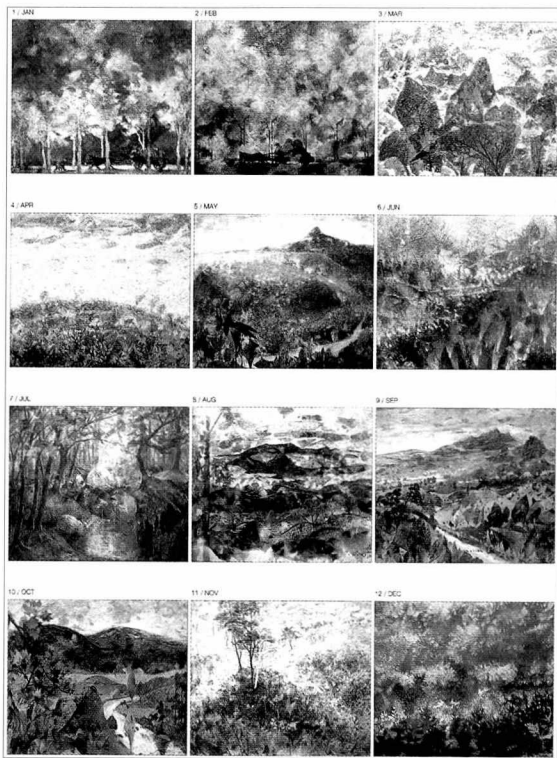
선병일 교수는 "월드컵을 계기로 젊은이들과 외국인들 사이에 우리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문화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전체 주제를 '한국의 미' 로 한정시켰다"라고 말했다.

학기로 계산을 하면 3월에서 6월까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학생들은 길지 않은 시간에 자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표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봄 학기에 맞춰 강의가 열리지만 학생들의 전시회 준비는 계절을 앞서서 겨울방학과 함께 시작된다. 가을학기 종강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전시회 주제가 주어지면 학생들은 2인 1조가 되어 아이디어 구상으로 겨울방학을 보낸다.

봄 학기가 시작되면 개강과 동시에 내용과 주제 설정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며, 4월부터는 본격적인 그래픽 시안 작업에 돌입한다. 남들이 축제 준비에 바쁜 오월에도 전시회 준비를 위한 학생들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데 5월에는 원고 선별작업이 진행된다.

간단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학생들이 쏟는 정성은 보통이 아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고 확보 작업이다. 학생들은 원고수집을 위해 공문을 보내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해, 단 한 장의 원고를 얻기 위해 몇 번을 오고가는 노고를 들여야 한다.

다리품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원고는 그래도 수월한 편이다. 다른 해와 달리 '한국의 미' 라는 특정 주제가 정해진 이번 전시회의 경우는 유난히 원고 확보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부 작품은 지나친 사용료를 요구해 진품 원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진품에 가장 가깝게 복원된 작품을 원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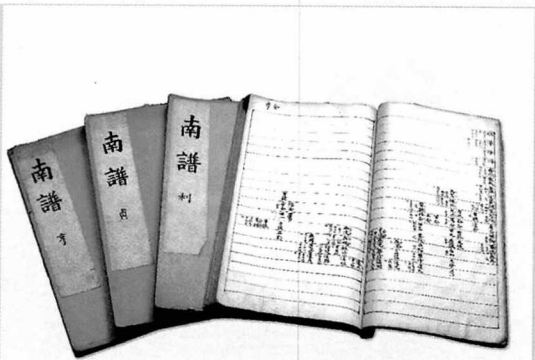


5 M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Ap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南譜 卷一
 南譜 卷二
 南譜 卷三
 南譜 卷四
 南譜 卷五
 南譜 卷六
 南譜 卷七
 南譜 卷八
 南譜 卷九
 南譜 卷十
 南譜 卷十一
 南譜 卷十二
 南譜 卷十三
 南譜 卷十四
 南譜 卷十五
 南譜 卷十六
 南譜 卷十七
 南譜 卷十八
 南譜 卷十九
 南譜 卷二十
 南譜 卷二十一
 南譜 卷二十二
 南譜 卷二十三
 南譜 卷二十四
 南譜 卷二十五
 南譜 卷二十六
 南譜 卷二十七
 南譜 卷二十八
 南譜 卷二十九
 南譜 卷三十

January 1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February 12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학생들은 현장능력 배양

홍일문화사는 장래 고객 확보

촬영해 사용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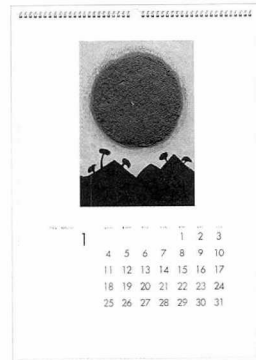
전시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졸업을 목전에 둔 4학년생인 관계로 학생들은 캘린더 전시회 외에도 졸업작품 전시회를 한번 더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며, 전공필수가 아닌 전공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율은 90%가 넘는다.

지도교수인 선병일 교수는 “캘린더는 그래픽 디자인과 인쇄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텍스트와 이미지의 자리배치를 통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배울 수 있으며, 텍스트로 삽입되는 숫자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타이포그래피를 배울 수 있다. 아울러 인쇄 및 제본까지 접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그래픽과 인쇄를 이해하기에 더없이 좋은 작업이다”라며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을 설명했다. 8개월 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물을 일반인에게 보여준다는 전시회 본연의 취지도 좋지만 후원사인 홍일문화인쇄사와 학생들이 공통으로 꼽은 최종 목적은 전시품목의 양산화이다. 일부 품목이 양산화 과정을 겪긴 했지만 양산화 과정은 학생들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

전시품목의 양산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디자인 요소를 중요시하는 학생들과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기업체 실무 담당자간의 이해 부족이다.

선병일 교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서점에 다양한 캘린더를 판매하고 있다. 캘린더 시장이 우리처럼 공짜가 아닌 직접 구매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짜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기업체에서는 되도록 간단하면서도 텍스트가 큰 디자인을 원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선병일 교수와 작품제작에 참여한 학생들



산학협동 차원에서 전시회를 후원하고 있는 홍일문화인쇄사도 학생들의 작품을 양산화해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같은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산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산학협동이란 대 전제 하에 열린 전시회는 양자 모두에게 윈-윈 게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전시회를 통해 자신감 외에 인쇄와 디자인을 이해하게 된다. 처음으로 후원한 지난해의 경우 인쇄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지나치게 큰 원고를 가져온다든지, 출력이 불가능한 폰트를 텍스트로 꾸민다든지 하는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한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생들은 인쇄 가능한(?) 디자인 작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홍일문화인쇄사도 디자인실 직원을 직접 학교로 파견하는 등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작년과 같은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홍일문화인쇄사가 얻은 결과물은 장래 고객 확보이다.

홍일문화인쇄 최창혁 전무이사는 “이익 창출이 목적인 기업이다 보니깐 학생들의 작품을 양산화 시키려는 욕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진 못했지만 추후 학생들이 디자인 실에 취직해서 오더를 낸다면 어디에 오더를 내겠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전시회 후원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 작가와 캘린더 'Art Calender전' 으로 열매

남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캘린더가 젊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였다면 지난 8월25일부터 9월6일까지 월간 아프리에가 예맥화랑에서 주최한 'Art Calender전'은 기성작가들의 농익은 실력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였다.

상명대 교수로 재직중인 구자승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을 비롯한 32인의 작품이 전시된 이번 전시회는 미술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Art Calender전'으로 명시된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은 추후 2004년도 홍일문화인쇄사 캘린더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간 화단에서는 캘린더에서 기성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는 것이 오페라가수가 대중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천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화단의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시회 오픈행사에서는 하나같이 캘린더와 예술작품의 만남으로 화두를 열었다.

전시회를 주최한 월간 아프리에 정명희 발행인은 "작가의 창작물이 작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출시되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전시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작가대표로 나선 구자승 교수도 "캘린더에 미술작품이 소개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이번 전시회가 미술이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후원사로 나선 홍일문화인쇄사 이연지 회장은 "공짜로 나누어주는 캘린더가 일반화된 우리나라에서 기성작가들의 작품을 캘린더로 만든다는 것은 캘린더제작사로서는 하나의 모험이었다. 홍일문화의 노력이 캘린더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꾸는데 일조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회를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우기자〉



◆ 홍일문화인쇄 이연지 사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필름공정이 없는 CtP 시스템의 도입으로 귀사의 비즈니스 환경을 한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sko-Graphics는 디지털 데이터 생성을 위한 입력장치에서 출력기, 교정 솔루션, 워크플로우 등 CtP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털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lateDriver 8 up Auto

PlateDriver

ESKO
EXPECT MORE

마이크로큐닉스(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디지털밸리II 8층 TEL. 2113-0027 www.microqnix.com

MICROQNIX